

# 도내 학생 다양한 미술작품 만난다

## ‘2020 전북학생 창의미술 릴레이전’ 11월까지 온·오프라인 진행... 도내 8교·200여명 참여

도내 학생들의 다양한 미술작품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만나 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2020 전북학생 창의미술 릴레이전’을 9월 5일부터 11월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창의미술 체험 프로젝트’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창의력과 풍부한 인성 함

양을 위한 교내·외 미술체험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릴레이 전시에는 한국전통문화고·이리북중·서진중·양현고·백화여고·원광정보예술고·전주한일고·전주서곡중 등 8개교에서 200여 명이 참여한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소규모 오프라인 전시뿐 아니라 비대면 온라인 전시를 병행해 학생들의 안전한 참

작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가장 먼저 한국전통고는 5~7일까지 서화아트스페이스에서 오프라인 전시를 갖는다.

또 이북북중·서진중·양현고·백화여고는 10월31일~11월1일까지 전북 교육문화회관 제2전시실에서, 원광정보예술고·전주한일고·전주서곡중은 11월17~23일까지 같은 공간에서 전시를 이어갈 예정이다.

순수미술, 주제가 있는 웹툰, 디자인, 공예, 디자인 패션쇼 등 학생들의 다양한 작품이 전시된다.

이와 함께 온라인 전시는 JBART 홈페이지

(http://www.jbart.co.kr)를 통해 운영된다. JBART 홈페이지에서는 전시소개, 전시일정, 학교별 작품을 만나 볼 수 있으며 오프라인 전시 오픈 일정에 맞추어 순차적으로 공개된다.

도교육청 예술교육 담당 장학사는 “창의미술체험 프로젝트에는 도내 30개 학교에서 참여했고, 그중 8개 학교가 이번 릴레이 전시를 희망했다”며 “온라인 전시를 통해 학생들의 미술체험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또 코로나19 대응에 의한 비대면 감상교육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장은성기자

## 태양광 에너지 사업화 워크숍 원광대 LINC+사업단

원광대학교(총장 박맹수) LINC+사업단은 광주·전북 MG 산업 생태계 조성 위한 태양광 에너지 사업화 1차 워크숍을 최근 전주 그랜드힐스호텔에서 개최했다.

태양광 에너지 사업화 지원을 위해 처음 열린 이번 워크숍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및 광주지역사업평가단 지원으로 사업 참여기업인 (주)대경산전과 (주)쓰리인, (주)기타이앤씨, (주)뉴텍코리아, (주)디엠티, KSTI, 원광대 등 7개의 기관이 참여했다.

워크숍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에너지산업 동향 을 주제로 1부에서는 소규모 설비기술과 ICT 기술 적용 스마트그리드 구축 등 에너지 운영 시스템의 효율화 추진을 위한 방법과 기존 발전소 및 송배전망 운영에서 발생하는 운영방식 에너지 스마트화 추진 기술 등에 관한 강사가 펼쳐졌다.

이어 2부에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그린 뉴딜의 중요성과 한국형 뉴딜 추진 방향을 통해 저탄소 사회로의 도약을 위한 국가 발전전략에 대한 강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수혜기업 간의 차기 사업화 전략 수립을 위해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특화 수상태양광 관련 R&D과제 아젠다 토의를 진행했고, 기업협의체 간 애로사항 및 향후 계획을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LINC+사업단장 송문규 교수는 “기업협의체(WG) 간 지속적인 워크숍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신재생에너지 분야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기업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익산=장왕원 기자



원광대학교(총장 박맹수) LINC+사업단은 광주·전북 MG 산업 생태계 조성 위한 태양광 에너지 사업화 1차 워크숍을 최근 전주 그랜드힐스호텔에서 개최했다.

## 직업계고 졸업생 계속 지원...도내 2곳 선정

### 군산기계공고·전북기계공고...5년간 매년 1억씩 예산 지원

군산기계공업고등학교(김종천 교장),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두승 교장)가 ‘직업계고 졸업생 계속 지원 모델 개발 사업’ 거점학교에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두 학교는 최대 5년간 매년 1억씩의 예산을 지원받아 졸업생 지원 인프

를 구축하고, 졸업생 이력 관리와 취업 지원 등을 추진한다. 취업을 희망하는 졸업생들은 거점학교를 중심으로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전국에서 총 17개교가 선정됐으며, 수도권 6개교, 강원·경상권 5개교, 충청·전라권 6개교가 선정됐다.

군산기계공고는 ‘취업 관리 앱 개

발·활용’, 전북기계공고는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협약을 통한 채용 박람회 개최’ 등의 취업 관리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된 두 학교를 중심으로 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와 연계해 직업계고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며 “이를 토대로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종합고 등의 직업계고 졸업생들의 취업을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학교 재활학과 교수들이 코로나19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 650만원을 모아 전 재학생에게 5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 ‘제자를 아끼는 교수님들의 사랑’

### 전주대 재활학과 교수들, 코로나19 장학금 기탁

전주대학교 재활학과 교수들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 650만원을 모아 전 재학생에게 5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 4일 전주대에 따르면 대학 본관에서 이호인 총장, 최용욱 의과대학장이 참석한 가운데 신현욱 학과장을 비롯한 재활학과 4명의 교수들이 재학생 대표 재활학과 우정현 학과장 성의현 부학과장에게 장학 증서를 전달했다.

이번 장학금은 재활학과 교수들이 뜻을 모아 학과 차원에서 제자들을 위해 모은 돈으로 코로나19로 아르바이트 구직난 강의 수강을 위한 추가비용 부담 등 경제

적 어려움을 겪는 모든 재학생을 대상으로 5만원씩 지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호인 총장은 “교수들이 제자를 위해 장학금을 모으고 전달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다”며, “제자를 아끼는 교수님들의 사랑과 헌신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신현욱 학과장(재활학과)은 “좋은 학교, 좋은 교수, 좋은 제자들을 만나 전주대에서 교육과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학과 교수들과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동참하게 됐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작은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은성기자

## 전주비전대, '마음 The함 집단 상담프로그램' 진행

전주비전대학교(총장 홍순직)는 진로심리상담센터와 국제교육원이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마음 The함 집단 상담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마음 The함 집단 상담프로그램'.

코로나19 여파로 유학생들의 대학생활 부적응을 예방하고 심리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마련된 이번 프로그램은 '자기이해를 통한 스트레스 조절'과 '미술치료를 통한 스트레스 발산' 등 다양한 주제로 7개 조(조별 4~10명)가 참여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유학생들은 “고향이 그리움과 가족이 보고 싶지만 어려움을 잘 극복해 한국에 온 목적을 이루고 잘 마무리 하겠다”, “진절하게 대해 줘서 고맙고 또 민나고 싶다”, “아주 재미있었고 스트레스가 많이 풀렸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즐거워졌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조현미 센터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유학생

들이 심리적 위축에서 회복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심리검사와 상담자원을 위해 더욱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비전대 진로심리상담센터에서 진행되는 상담프로그램 ‘적은 The함’, ‘마음 The함’, ‘비전 The함’은 대학생의 자기개발 및 심리자원을 위한 개인 또는 집단상담 프로그램으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하반기에도 지속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